

길림시 조선족 새해맞이 행사 펼쳐



길림시조선족연합회 회원단위 대표들

12월 21일, '민족단결진보, 단합된 힘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를 주제로 한 길림시 조선족 새해맞이 행사가 길림시정대병원 다기능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길림시조선족연합회 주최,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길림시조선족중예술

관, 길림시 조선족 중소학교, 길림시 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도라지문화사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길림시조선족연합회 김숙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올 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래년에도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호소했다.

길림시조선족연합회는 지난 4월 29일 설립 이후 김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리더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길림시 강만로 민족풍정거리광장 조선족 상품식품 전시 및 문화예술제를 기획하고 정기 공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족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흥을 돋구는 장고 춤과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 조선족 전통 가무와 사랑송, 전통 옷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여졌다.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는 기쁨 속에 화합된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차영국기자



행사 현장에 전시된 '길림 7호 운석'

12월 17일 오전, '눈 내리는 장백산' 길림시 빙설 테마 문화관광 프로모션 행사가 서안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길림시정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서안시 문화관광부서 및 관련 기관 대표, 현지 주요 여행사, 스키장, 미디어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프로모션 회의는 길림시의 겨울 정취와 빙설 풍경을 담은 영상과 함께 막을 올렸다. 길림시정부와 서안시문화관광국 관계자는 두 지역간 문화관광자원 공유, 시장 상호작용, 관광객 상호 유치를 심화하겠다는 공동의 굳은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길림시측은 길림 현지의 빙설 자원, 자연경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스키관광, 눈꽃 관람, 문화체험, 미식탐방을 하나로 묶은 동계 관광 시스템을 선보였다.

길림시박물관은 현장에 전시된 '길림 7호 운석' 등을 비롯한 소장 자료를 중점 소개했다. 길림시문화관광국은 복산스키장, 야간 송화강 관광 등 특색 프로젝트와 문화창의제품을 선보였으며 서안시관광협회는 서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동계 핵심 관광 루트를 발표하였다.

/ 길림일보

북화대학, 전국 교육 분야 3개 부문 상 동시 수상

최근 중국 교육 온라인 '모범의 힘 · 2025 년례 교육 성전(盛典)' 시상 결과가 발표됐다. 북화대학이 신미디어 운영, 스마트 입시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 네트워크 영향력 등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년도 신미디어 영향력 우수 학과과정 대학', '2025 년도 스마트 입시 구현 우수 학과과정 대학', '2025 년도 최고 네트워크 영향력 대학원 입시 대학' 등 세 개의 영예로운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스마트 입시', '스마트 대학원 입시' 대학 입시 데이터, 입시 스마트 시스템, 중앙교육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및 제 3자 데이터 등 다원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종합 심사를 거쳐 3개 대분류에 23개 세부부류로 구성된 년도별 우수 사례 목록을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신미디어 영향력 우수 학과과정 대학' 부문은 대학의 신미디어



어 채널, 디지털 수단 및 AI 기술을 활용한 캠퍼스 문화 구축,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의 혁신과 실적을 중점 평가했다.

'스마트 입시 구현 우수 학과과정 대학' 부문은 입시 과정에서의 스마트 도구 활용 수준과 이를 통한 입시 절차 및 전략 최적화 성과에 주목했다.

'최고 네트워크 영향력 대학원 입시 대학' 부문은 대학의 네트워크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학원 입시 홍보의 정확성과 통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북화대학은 최근 몇년간 신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구축하고 스마트 입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이번 평가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측은 "이번 수상은 학교의 기존 작업에 대한 격려이자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며 "앞으로도 신미디어 및 스마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입시 홍보 및 교육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길림일보

'아이스와인, 경령 물고기요리'... 교하시 동계 관광 개막식 뜨겁게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교하시에서 동계 관광 시즌 개막식과 함께 '호령포크 · 흥업령' 자동차 투어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면서 교하시 2025년-2026년 동계 관광 시즌의 정식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흑룡강성자동차동호회 소속 오프로드 차(越野车) 100여대와 인터넷 왕홍 40여명이 참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흑룡강성자동차동호회의 교하시 방문은 올해로 세번째, 교하호텔측이 총괄 연락 및 특색 관광 루트를 세심히 기획하여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이 교하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인문적 매력을 만끽할수 있도록 했다.

14일, 행사 개막식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주제가 인쇄된 대형 현수막에 서명하여 기념을 남기고 교하시 문화관광국은 동계 시즌 계절 관광상품을 발표하며 현지 빙설 자원의 독특한 매력을 전면적으로 선보였다.

"아자아자! 힘내!"

오프로드 대회 본경기전, 눈발 바줄 당기기가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참가자들은 두터운 눈을 딛고 바줄을 꼭 잡은 채 함성과 응원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대결을 펼쳤다. 웃음소리와 환호소리는 빙설 스포츠의 활력과 즐거움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당일 오프로드 차들은 경령 핵심 관광지를 향해 출발했다. 연도의 하

안 눈과 반짝이는 얼음폭포... 겨울 풍경에 푹 빠진 참가자들은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는 틱톡 등 각종 인너넷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하며 교하의 겨울철 매력을 공유했다.

투어 행사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운전자들에게는 게사니, 송화호 생선, 토종닭 등 지역 특색 상품이 수여되었으며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기념품이 제공되었다. 저녁에는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경령 생선요리, 탕수육 등 전통 음식을 맛보며 따뜻한 정취 속에서 피로를 풀었다.

다음날인 15일의 오프로드 령정은 흥업령국가삼림공원으로 운전자들은 함박눈이 쌓인 숲과 설원을 누비며 교하 겨울철의 고요하고도 웅장한 매력을 느꼈다.

오후에는 새로운 문화 체험 일정이 추가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신진장에 위치한 장백산포도주공장을 방문,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술 저장고를 둘러보고 장백산 아이스와인의 정교한 양조 공정과 깊은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아이스와인 체험'을 완성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하 빙설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



음폭포 경관이든 특색 음식이든 모두 인상 깊었어요." 흑룡강성에서 온 자동차동호회 회원 왕선생은 "돌아가서 이 아름다운 경관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데리고 교하에 와서 체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하시문화관광국 책임자는 "이번 동계 관광 시즌에 교하시는 라뎬산, 로아령, 송화호 등 3대 문화관광 IP를 핵심으로 겨울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뜨거운 교하의 겨울' 문화관광 브랜드를 기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조치에는 라뎬산 기반시설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등산 및 사진 애호가들을 유치해 고산 설정과 성애꽃 경관을 감상하게 하고 캠프장을 중점 건설해 침엽림 속 북유럽식 비경, 사슴농장, 눈놀이터 등 특색 경관을 조성하며 빙설 모터씨를 타기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송화호 연날리기 스키 초청전, 교하시 스케이트 빙상대회 등 전문 경기를 개최해 동계 스포츠 브랜드를 구축하는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천강진 태평구, 백석산진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향촌 빙설 놀이터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빙설관광을 풍부히 하고 향촌 동계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교하를 찾고 교하에서 즐기고 교하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할 계획이다. / 길림일보

송화호에 동주 양식 프로젝트 도입 항실의 보물 진주의 부활 기대



최근 길림시 송화호 수역에 특색 있는 동주(东珠) 양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호수 생태여역의 다각화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동주는 만족어로 '타나'라고 불리는데 역사적으로 주로 송화강, 흑룡강 등 류역에서 생산되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황실의 보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장기간의 대규모 채취 등 원인으로 이 귀중한 자원은 거의 고갈되었다.

이번 동주 양식 프로젝트는 길림시소일하여업유한회사에서 투자했다. 한편, 첫 물량으로 절강성의 전문 종묘회사로부터 구매된 6,010마리 동주 조개가 이미 송화호 량자자 수역에 성공적으로 방류되었다.

해당 수역에 도입된 동주 조개에는 고품질의 다양한 품종이 포함, 1년생부터 3년생에 이르는 다양한 성장단계를 아우른다.

/ 길림일보

이 프로젝트는 적합한 그물망 양식 기술을 도입하여 관리가 유연하고 성장이 비교적 빠르며 조개가 천연 먹이를 섭취하는 데 유리한 뿐만 아니라 일상 관리와 수질 모니터링에도 편리하다. 양식 전 과정은 호수지역 생태보호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밀도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인공적이 공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양식 활동과 호수 생태계의 조화를 보장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급 진주 시장의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8.5%에 달한다. 동주는 희귀 품종으로서 일반 담수 진주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다. 앞으로 규범적으로 양식한 송화호 동주는 고급 주얼리(珠宝) 및 문화창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로부터 지역 생태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